

2016년 12월 15일, 표선면 성읍1리 성읍1리노인회관, 송정희 조사.  
조인홍(남, 1934년생, 표선면 성읍1리)

**[제보자]** 벤할망 잊어낫주. 안 혀꽈? 그 방구게메 옆에 살아난? 그 굴렁짓 할망? 굴렁짓 할망. 어. 그 벤칩이 시집 간 할망. 벤칩이 할망. 게난 그 할망이 하도 물 질레 가는디 소가 돌아나가난 오롬에서

“그 쉐 훈펜이네 삽서. 그 쉐 찔릅니다. 찔릅니다.”

막 우에서 웨는디. 뭔 쉐냐믄 산에서 산소가 누려와. 산소 심엉 석전에 성읍리 그 석전이라고 정의 행교에 제 지낼라고 흥지가 모여전, 그 쉘 심자고 허는디 쉐 가 기냥 막 내려완. 알러레 막 터전 듣는디 할망은 물 전 가단 어떤 일이 잇인고 허민

“저 할망 옆더레 들어갑서. 쉐 찔릅니다. 찔릅니다.”

허난, 영 옆더레 삿단 쉐 폭허게시리 쉐 데가리 반 부쩐 폭 심으난 쉐가 엹 행  
“요 쉐 와 제기 심엉 가.”

제기 심엉 가난. 게난 원 할망 빤, 아이고 이런 할망 잇이나 할망을 그냥 하늘 모시듯이 모셔낫젠 허여.

- 핵심어 : 벤할망, 힘, 소, 성읍리, 석전, 정의 행교